

I. 르네상스와 개인의 탄생

1.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중세(영주와 교황계급)가 급속도로 몰락하고 동방 문물이 유입되어 상업도시가 번성하며 화폐경제가 발달함
2. 르네상스, 종교개혁, 지리상의 '발견'
 - 1) 기존의 초자연적 권위를 통해 보호받고 세습되었던 문화와 제도들이 이성적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재배치되면서 왕권신수설로부터 사회계약설로 전환됨
3. 신분적 위계 질서의 의식이 변화되어 초자연적 질서에서 현실로 이어짐
4. 르네상스
 - 1) 're-' (다시, 거듭) + 'nascere' (태어나다) = "재탄생"
 - 2) 14세기~16세 사이에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
 - 3) 예술 전반에 걸쳐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재수용을 의미하는 시대적 정신운동
 - 4) 르네상스의 시작과 더불어 긴 중세시대가 막을 내렸으며 근대가 열림
 - 5)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고려의 직지심경
5. 데카르트(Descartes)의 철학적 세계관
 - 1) 자연은 거대하고 정밀한 기계다
6. 17세기 과학혁명
 - 1) 갈릴레오 갈릴레이 : 관측, 양화 가능한 인간 중심적 자연관
 - 2) 요하네스 케플러
 - “나는 태양계의 운동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내 연구의 목적은 천체라는 기계가 신성한 유기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계와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계의 모든 운동이 간단한 추에 의해 이루어지듯 천체의 모든 운동 또한 그러하다. 나는 이것에 관한 물리적 개념을 계산과 기하학을 통해 표현할 것이다.”
7. 근대 개인의 탄생
 - 1) 자연의 질서와 공동체의 질서가 구분됨
 - 2) 차안과 파안을 연결시켜주는 초자연적인 권위가 상실됨
 - 3) 신분적 위계질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남
 - 4) 태생적 계급, 신분과 그에 따른 기능을 넘어서 평등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함
 - 5) 기존에 권력을 뒷받침한 의식들은 과시적, 허영적 관습으로 이해되기 시작함
8. 르네상스 이후 역사적 변동
 - 1) 상업이 발달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출현함
 - 2) 인쇄술이 활용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남
 - 3) 계몽사상의 토대를 둔 프랑스 대혁명 등 민주주의적 정치격변의 시기
 - 4) 갈릴레오 지동설, 뉴턴 물리학 등 과학기술이 발달함

9. 근대의 신체관

- 1) 새로운 해부학의 발전 : 신체 내부 장기들의 기능을 전체 유기체로서의 생명 안에서 파악함
- 2) 르네상스 시기 조각예술 : 살아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이상이 반영됨
- 3) 서구 생명관의 변화
 - 히포크라테스 : 그리스 시대의 의사로 인간 생명의 4액체설을 주장하며 비율의 불균형이 질병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갈레노스 :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사상을 계승해 각 기관 기능에 대해 설명했으며 소변과 신장의 관계, 골격, 근육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지만 피가 간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등 혈액과 내장에 대한 부분은 조악한 수준임
 - 아리스토텔레스 : 자연법 사상으로 자연에 헛된 것은 없다고 주장함
 -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 16세기 외과의사 겸 이발사로 인간의 사체를 해부하여 의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임
 - 윌리엄 하비 : 16세기 의사 겸 생리학자로 혈액순환론을 통하여 피의 순환을 밝히고 신체의 기능을 양화적으로 설명했으며 생물학 분야를 천년 넘게 지배해온 갈레노스의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생물학의 과학혁명을 이룸

II. 순수 예술 시대의 도래

1. 순수 예술이란?

- 1) 천재적인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새롭고 놀라운 예술작품
- 2) 다른 어떤 권위나 외적 목적, 효용성에 종속되지 않고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임

2. 예술의 창조성

- 1) 예술이 독립적 영역으로 이해되기 시작함
- 2) 예술은 순수한 창조활동이며 예술가는 창조활동의 주체인 작가임
- 3) 그리스 시대의 예술은 모방하는 행위이자 창조로 이해되지 않음
- 4) 중세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의 활동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님
- 5)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과 배경은 예술활동을 지성적인 것으로 인식시킴
- 6) 미술 아카데미의 제도화(아틀리에)로 미술의 고유성을 주장함

III. 위대한 천재들

1. 천재 : 창조의 역할을 천재가 담당함
2. 예술적 천재 : 기존의 원칙을 바꾸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기술적 장인과 구별됨
3. 18세기 예술은 기술과 명확히 구분됨
 - 1) 서명행위의 탄생
 - 2) 신적 창조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전환됨
 - 3) 인간의 특이하고 독자적인 능력이 부각됨
4. 르네상스시대의 예술가
 - 1) 종교가 쇠퇴한 상황에서 이전의 코드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양식의 창안을 미덕으로 삼는 새로운 양식들이 등장함
 - 2) 예술가라는 주체가 예술의 주제가 되며 풍속화, 풍경화, 자화상이 등장함
 - 3) 작품보다 작가의식이 강조됨
5. 원근법
 - 1) 1414년 비트루비우스가 기원전 1세기에 쓴 원근법에 대한 저서가 발견됨
 - 2) 건축가 브르넬리ски로부터 화가 지오토가 작품에 사용됨
 - 3) 알베르티가 자신의 〈회화론〉에서 이론적으로 구체화시킴
6. 재현으로서의 예술
 - 1) 예술의 시대 동안 통일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공간을 작품 안에 담아 내려는 노력임
 - 2) 세계와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려는 예술의 이상이 지배함
 - 3) 원근법과 기하학을 이용하여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완벽한 재현을 구현함
 - 4) 예술가 자신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 안에서 대상들을 배치하면서 화가의 위치는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신적 지위로 격상됨

7. 르네상스의 천재들

1) 레오나르도 다 빈치

- 1452~1519, 이탈리아 출생으로 르네상스 시대 3대 천재 화가 중 일인
- 원근법을 사용하여 외부대상을 생생하게 재현함
- 대표작 :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수태고지 등

2) 미켈란젤로

- 1475~1564, 이탈리아 출생으로 르네상스 시대 3대 천재 화가 중 일인
-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 시인
- 피렌체의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으며 조각가로 성장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문을 받는 고급화가가 됨
- 대표작 : 천지창조, 피에타, 다비드 상

3) 라파엘로

- 1483~1520, 이탈리아 출생으로 르네상스 시대 3대 천재 화가 중 일인
- 화가이자 지성인 조반니 산티의 아들
- 교황청의 건축, 회화, 장식 등 미술분야의 감독 책임자가 됨
- 37세의 나이로 요절해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국가 장례가 치뤄지고 로마 판테온에 묻힘
- 라파엘로의 재능
 - ① 정교한 세부묘사와 단단한 윤곽선
 - ② 베네치아적 빛과 색채의 효과
 - ③ 레오나르도 특유의 구도와 명암법
 - ④ 미켈란젤로와 같은 영웅적 무게감
 - ⑤ 밝고 우아한 생명력
- 대표작 : 아테네의 학당, 그리스도의 변용, 파르나소스

4) 뒤러

- 1471~1528, 독일 출생
- 화가, 판화가, 조각가이며 특히 동판화, 수채화에서 독창적 재질을 보임
- 〈인간의 비례론〉, 〈원근법에 관한 고찰〉등 이론 연구에서도 두각을 보임
- 르네상스 전성기에 이탈리아에 유학하여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독자적인 화풍을 창조함
- 북유럽적, 독일적 미의 전통에 기여하고 수채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
- 인물이 없는 풍경화를 그린 사실주의적 화풍을 보여줌
- 대표작 : 아담과 이브, 자화상, 어머니